



영화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의 한 장면.(사진 왼쪽)· 영화 '위대한 쇼맨'의 한 장면.

올겨울 극장가 '흥미진진'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 등 12월 개봉 외국영화 'BIG 3' 공개

정우성·곽도원과 양우석 감독의 첩보물 '강철비'(14일 개봉), 하정우·차태현·주지훈과 김용화 감독의 판타지 '신과 함께'(20일 개봉), 김윤석·하정우·유혜진·김태리와 장준환 감독의 시대극 '1987'(27일 개봉)

12월 한국영화 '빅3'의 면면은 배우·감독 등 그 면면만 봐도 화려하다

12월 극장가가 흥미로운 건 이들 한국영화 외에도 주목할 만한 외국영화가 많이 있다. 개봉하기 때문이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8번째 영화인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감독 라이언 존슨)(14일 개봉), 휴 잭맨의 뮤지컬영화 '위대한 쇼맨'(감독 마이클 그레이시)(20일 개봉),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14일 개봉) 등이 외국영화 '빅3' 구도를 형성했다.

각 영화 배급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불러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개봉일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관객 입장에서 즐거운 고민이다.

◇ 전 세계 관객이 기다린다

올 연말 전 세계 관객이 가장 기대하는 작품 한 편을 꼽으려면 주저 없이 이 작품이다.

바로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 이번 작품은 세계 영화계 최고 판타지 SF 영화로 평가받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8번째 작품

'라스트 제다이'는 올해로 시리즈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나온 작품이라는 것. 데아 공주 역의 캐리 피셔(지난해 12월 타계)의 유작이라는 점에서 집중 조명받는다.

시리즈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전작 '스타워즈:깨어난 포스'(2015년 20억 달러)에 이어 또 어떤 영화적 신세계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전 세계 관객의 기대감이 높다.

깨어난 포스의 속편 격인 이번 작품은 내면에 잠재된 포스를 알게 된 레이(데이비드 라일리)와 퍼스트 오더의 실세 카일로 렌(애덤 드라이버)의 대립을 그리는 작품이다.

전작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루크 스카이워커'(마크 해밀)의 활약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충격적 이야기가 담길 것"이라는 제작진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예고편에는 "어둠이 일어나 빛과 마주하리라"라는 의미심장한 대사가 담겼다.

다만 진입 장벽이 높은 '스타워즈' 시리즈에 한국 관객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 12월에 어울리는 뮤지컬

'올버린' 휴 잭맨이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잭맨의 또 다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시종일관 무겁고 진지했다면 '위대한 쇼맨'에서 잭맨은 말그대로 쇼맨(showman)이 돼 스크린 위를 누빈다

지난해 12월 '라라랜드'가 있었다면, 올해 12월에는 '위대한 쇼맨'이 있다는 흥분 문구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화려하기로 따진다면 '라라랜드' 못지 않다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흥행할 요소를 갖춘 뮤지컬영화라는 건 '위대한 쇼맨'의 최대 장점이다.

영화는 '쇼비즈니스의 창시자' 노이즈 마케팅의 원조 '홍보의 아버지' 등 다양한 수식으로 설명되는 19세기 미국 서커스단장이자 흥행업자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1810~1891)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바넘' 휴 잭맨이 서커스단을 만든

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을 다룬다

잭맨과 함께 잭 에프론·미셸 윌리엄스·레베카 퍼거슨·젠다야 콜먼·폴 스팍스 등 출연 배우들의 면면도 흥미롭다.

◇한발 더 나아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고레에다 히로카즈(55) 감독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감독일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고'(9억8000명·2016) '바닷마을 다이어리'(10만명·2015)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12억5000명·2013) 등 최근 작품들은 다양성영화의 한계를 넘어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2011) '걸어도 걸어도'(2009) '아무도 모른다'(2005) 같은 작품들은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작품들이다.

흥행 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대작들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고레에다 감독의 새 영화 '세 번째 살인'에 대한 세네필들의 관심으로 따지면 남부럽지 않다

가족 드라마에 천착하던 고레에다 감독은 '세 번째 살인'에서 법정 스릴러를 택해 영화 세계 확장을 시도한다.

슬리 밖에 모르는 냉정한 변호사와 모든 범행을 자백한 살인범, 의심과 반복 등 스릴러물의 클리셰들이 고레에다 감독을 만나 어떻게 영화적으로 재탄생하는지 지켜보는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다

일본 최고 배우 중 한 명인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명연기, 최근 가장 각광받는 젊은 배우 히로세 스즈가 의 기투합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뉴시스

프로야구 은퇴선수 위한 '빅이닝' 프로그램 가동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원한다. 교육, 코칭, 진로·취업 컨설팅 전문가들로 은퇴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에서 은퇴하거나 조기은퇴를 고민하는 선수들이 야구지도자를 비롯해 야구산업 종사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는 '빅이닝'(big inning=beginning) 프로그램을 14~15일 선보인다.

은퇴준비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

는 빅이닝 프로그램은 은퇴 후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야구분야 취업을 위한 사전준비 기회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건강한 전문야구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선수협 김선용 사무총장은 "프로야구선수들은 평균 약 8년이 지나면 은퇴하지만 은퇴 후 계획이 없고 은퇴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구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야구선수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빅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야구선수 단순 재취업프로그램이 아니다. 야구산업이 직군별로 필요로 하는 선도적인 전문야구인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퇴선수뿐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방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크루스, 메이저리그 '올해의 지명타자' 상 수상

넬슨 크루스(37·시애틀 매리너스)가 2017년 메이저리그 최고의 지명타자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1일(한국시간) "크루스가 2017 에드거 마르티네스 지명타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른손 거포인 올해 1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8(56타수 160안타) 39홈런 119타점을 기록했다.

장타율은 0.549다. 메이저리그 타점 1위, 홈런 4위, 장타율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크루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4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냈다

시애틀 선수가 지명타자상을 받은 것은 크루스가 역대 세 번째다. 윌리 호튼(1979)이 첫 수상자. 에드

거 마르티네스가 1995년과 1997~1998년 2000~2001년 등 총 5차례 수상했다. 크루스는 마르티네스 이후 16년 만에 시애틀 선수로서 이 상을 거머쥐게 됐다.

1973년 제정돼 올해로 44번째를 맞이한 최고의 지명타자상이 '에드거 마르티네스 지명타자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2004년부터다.

시즌 100타수 이상을 소화한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와 중계진, 구단 홍보 담당자가 투표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마르티네스는 "크루스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크루스의 존재가 클럽하우스와 타선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동료들을 나아지게 하는지 직접 봤다.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자신



의 활 일을 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유니버설뮤직 '한국 첫 레이블' 22일 '연말 단독 콘서트' 연다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첫 레이블인 '올더레코드'가 단독 콘서트를 연다

오는 12월22일 흥대 무브홀에서 첫 레이블 공연

'올더레코드(ALL THE RECORD)'를 펼친다. 올더레코드는 '올더너리 벵스페셜(Ordinary But Special)'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으며 평범한 듯 하지만 특별한 싱어송라이터들의 레이블이다.

레이블 관계자는 "첫 레이블 콘서트인 만큼 각 아티스트의 색깔을 살린 무대는 물론 이번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협업 무대도 마련된다고 예고했다.

/뉴시스

다비드 실바, 맨시티 1년 재계약... 2020년까지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31)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2020년까지 뛴다. /뉴시스

맨시티는 1일(한국시간) "다비드 실바와 1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맨시티에 온 지 10년이 되는 2020년까지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실바는 2010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프리) 맨시티로 이적했다.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리그와 리그컵에서 각 2회씩 정상에 올랐고 잉글랜드축구협회(EA)컵에서도 한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실바는 이번 시즌 8개 도움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실바의 활약에 힘을 받은 맨시티는 13승1무(승점 40)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32)와 승점 차는 벌써 8로 벌어졌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